

11월 연근해 선박 기상정보



발표일: 2018년 11월 1일



해양기상정보

- **해상 특성**(최근 5년간('13~'17년))
 - 상순: 남해·서해 일부해상, 동해·제주도 해상의 파고는 약간 높았으나 그 밖은 낮았음
 - 중순: 전 해상의 파고는 약간 높았음
 - 하순: 전 해상의 파고는 약간 높았음
- **풍랑특보일 수**(최근 5년간('13~'17년))
 - 11월: 9.3일(상순 2.6일 / 중순 3.2일 / 하순 3.4일)
 - 10월 평균 풍랑특보일 수(7.9일)보다 1.4일 증가
- **해수면온도**
 - 10월 실태: 서해(16.6 ~ 21.9℃) / 남해(16.8 ~ 22.8℃) / 동해(17.5 ~ 22.2℃)
 - 11월 예상: 서해(12 ~ 18℃) / 남해(15 ~ 22℃) / 동해(15 ~ 20℃)
- **조석**(고극조위)
 - 인천: 8일(913cm) / 완도: 25일(392cm) / 포항: 27, 28일(35cm)

해양안전정보

- **해양선박 사고**(최근 5년간('13~'17년))
 - 전체 11,209척 중 983척(8.8%)으로 연 평균 197척의 사고가 발생
- ☞ 동절기에 접어드는 시기로, 선체 정비점검을 철저히 하여 정비불량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 기상특보 및 항행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안전항해를 하도록 권고

<11월 해양사고예방 표어>

“사망률 1위” 해양사고? 작업 중 안전사고!

어업정보

- **11월 어황**
 - 고등어, 참조기는 평년비 순조로우며, 전갱이는 평년비 순조 또는 평년수준, 갈치는 평년수준, 멸치는 평년수준 또는 평년비 부진, 살오징어는 평년비 부진하겠음

자료협조: 해양경찰청, 국립수산물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안전심판원

해양기상정보

최근 5년간('13~'17년) 11월 순별 평균 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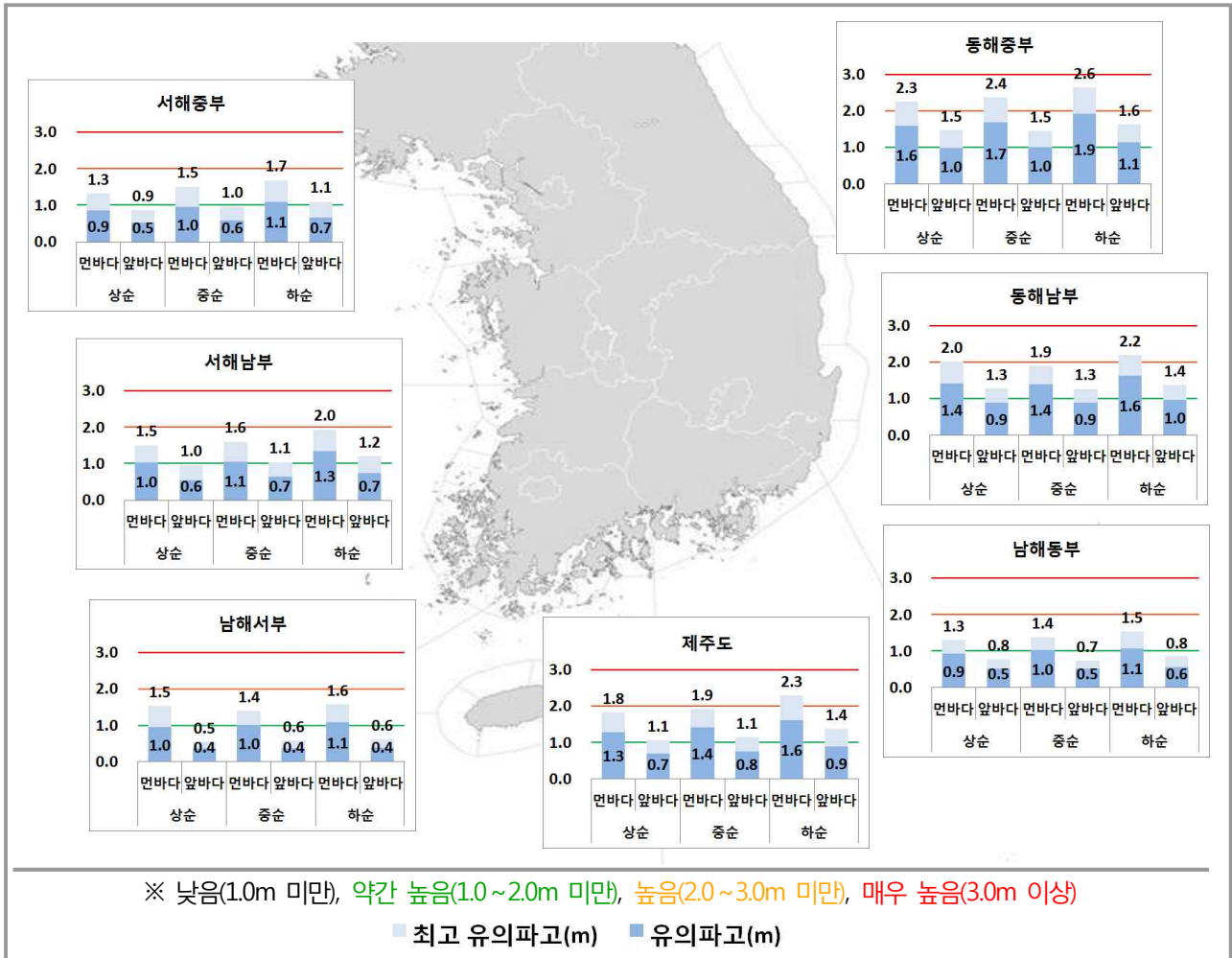


그림 1. 최근 5년간('13~'17년) 11월 순별 평균 파고

☞ 파고정보는 해역별 해양기상부이와 파고부이의 최근 5년간('13~'17년) 유의파고, 최고 유의파고의 순별 평균값을 활용

※ 최고 유의파고: 일 최고 유의파고의 평균값 / 유의파고: 일 평균 유의파고의 평균값

☞ 해양기상부이 및 파고부이 지점(관측 기간 5년 이상)

	해양기상부이	파고부이
서해중부	덕적도, 외연도	신진도, 삼시도, 이작도, 풍도, 자월도, 서천
서해남부	칠발도	옥도, 진도, 군산, 영광
남해서부	거문도	청산도, 금오도, 노화도, 고흥
남해동부	거제도	두미도, 장안, 해금강, 북항, 남항, 한산도
동해중부	울릉도, 동해	독도, 혈암, 구암, 연곡, 울릉읍, 토성, 삼척
동해남부	포항	죽변, 구룡포, 후포
제주도	마라도	제주항, 중문, 추자도, 우도, 가파도

최근 5년간('13~'17년) 11월 지점별 평균 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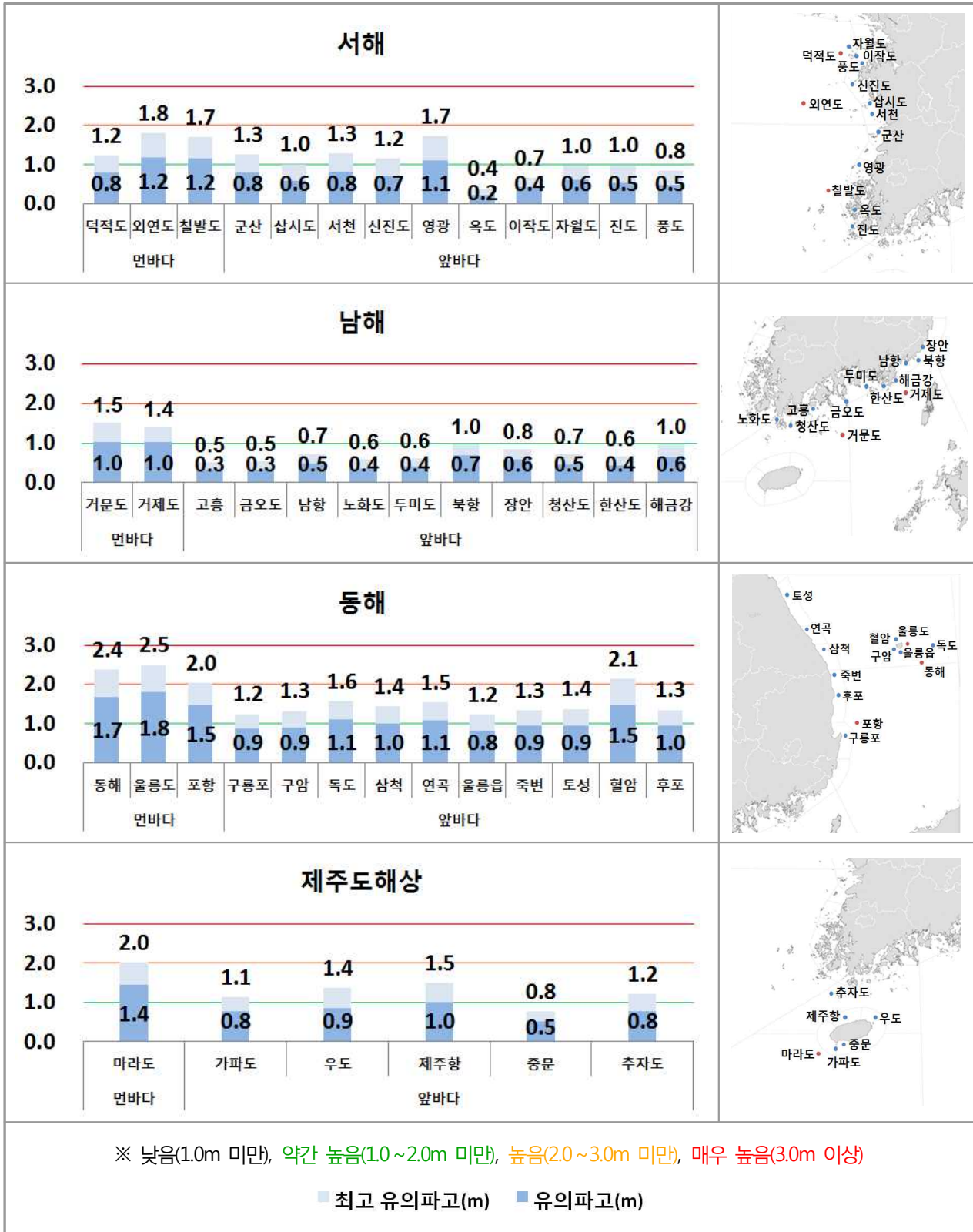


그림 2. 최근 5년간('13~'17년) 11월 지점별 평균 파고

○ 최근 5년간 11월 순별 유의파고 특성

- (상순) 먼바다: 남해·서해 일부해상, 동해·제주도 해상의 파고는 약간 높았으나 그 밖은 낮았음
 앞바다: 동해 일부해상의 파고는 약간 높았으나 그 밖은 낮았음
 ※ 동해 먼바다에서는 최고 유의파고가 2m이상 높게 나타났음
- (중순) 먼바다: 전 해상의 파고는 약간 높았음
 앞바다: 동해 일부해상의 파고는 약간 높았으나 그 밖은 낮았음
 ※ 동해 먼바다에서는 최고 유의파고가 2m이상 높게 나타났음
- (하순) 먼바다: 전 해상의 파고는 약간 높았음
 앞바다: 동해의 파고는 약간 높았지만 그 밖은 낮았음
 ※ 동해, 서해, 제주도 먼바다에서는 최고 유의파고가 2m이상 높게 나타났음

○ 최근 5년간 11월 지점별 유의파고 특성

- (서해) 먼바다: 외연도, 칠발도의 파고는 약간 높았으나 그 밖은 낮았음
 앞바다: 영광의 파고는 약간 높았으나 그 밖은 낮았음
- (남해) 먼바다: 전 해상의 파고는 약간 높았음
 앞바다: 전 해상의 파고는 낮았음
- (동해) 먼바다: 전 해상의 파고는 약간 높았음
 앞바다: 독도, 삼척, 연곡, 혈암, 후포의 파고는 약간 높았지만 그 밖은 낮았음
 ※ 동해, 울릉도, 포항, 혈암에서는 최고 유의파고가 2m이상 높게 나타났음
- (제주도) 먼바다: 전 해상의 파고는 높았음
 앞바다: 제주항의 파고는 약간 높았으나 그 밖은 낮았음
 ※ 마라도에서는 최고 유의파고가 2m이상 높게 나타났음

○ 최근 5년간 11월 지점별 유의파고 극값(일 평균)

해역	1위			2위			3위		
	지점	날짜	값(m)	지점	날짜	값(m)	지점	날짜	값(m)
서해	외연도	2013-11-25	4.0	영광	2015-11-26	3.9	외연도	2015-11-26	3.8
남해	거문도	2013-11-25	3.0	거제도	2014-11-25	3.0	거제도	2015-11-18	2.9
동해	동해	2015-11-27	5.8	울릉도	2015-11-27	5.0	포항	2015-11-27	4.3
제주	마라도	2013-11-25	4.0	마라도	2013-11-28	3.7	마라도	2017-11-18	3.6

■ 최근 5년간('13~'17년) 및 2017년 11월 풍랑특보일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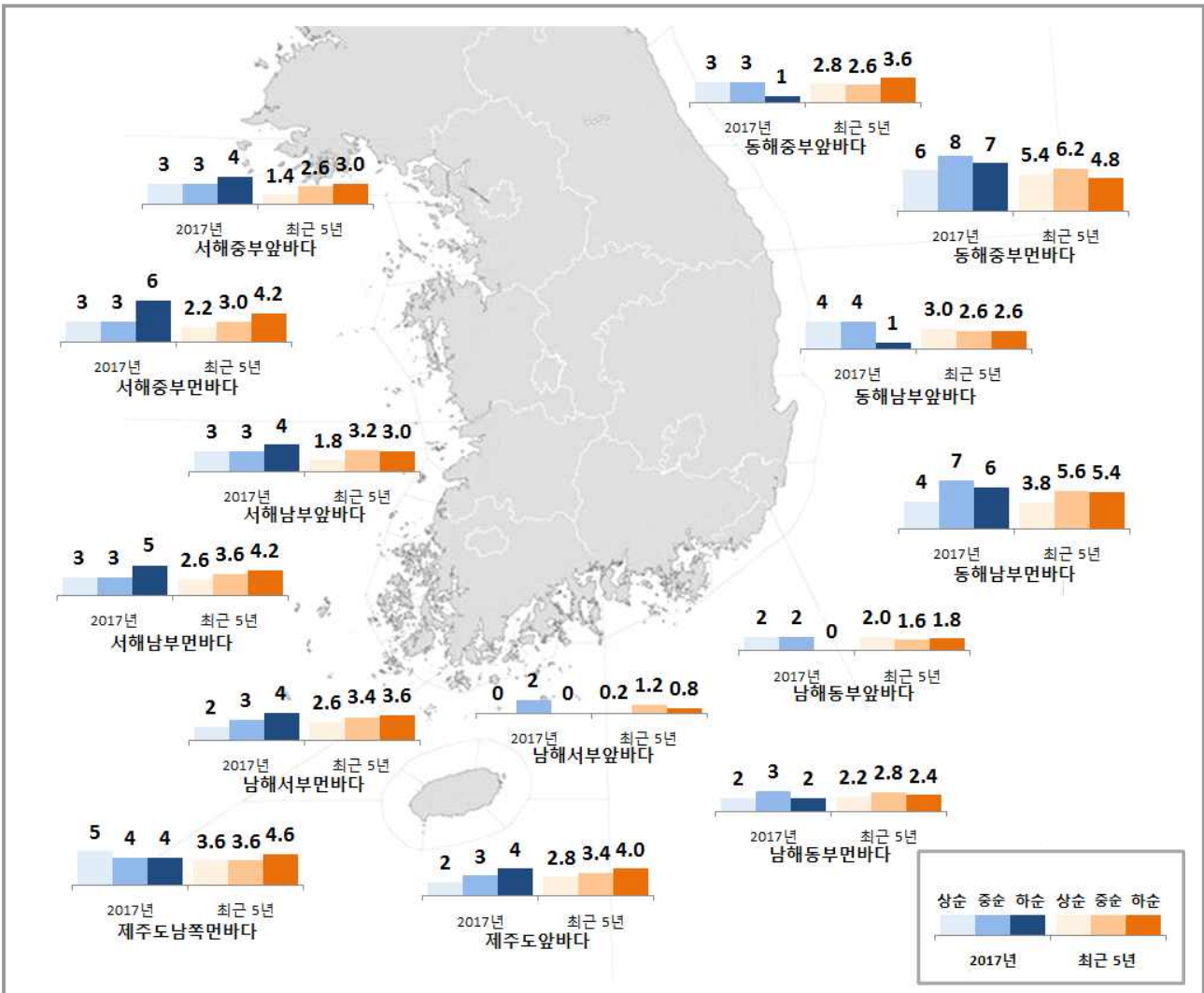


그림 3. 최근 5년간('13~'17년) 및 2017년 11월 풍랑 특보일 수(상순, 중순, 하순)

- 최근 5년간 11월 풍랑특보 평균 발표일 수: 9.3일
 - 10월(7.9일)보다 1.4일 증가
- 11월 순별 풍랑특보 평균 발표일 수 비교
 - 최근 5년간 평균: 상순 2.6일 / 중순 3.2일 / 하순 3.4일
 - 지난해(2017년): 상순 3.0일 / 중순 3.6일 / 하순 3.4일
- 최근 5년간 11월 풍랑특보일 수 최다, 최소 해역
 - 최다 해역: 동해중부먼바다 / 평균 16.4일
 - 최소 해역: 남해서부앞바다 / 평균 2.2일

■ 지난해(2017년) 11월의 해양기상부이 해상풍 및 파고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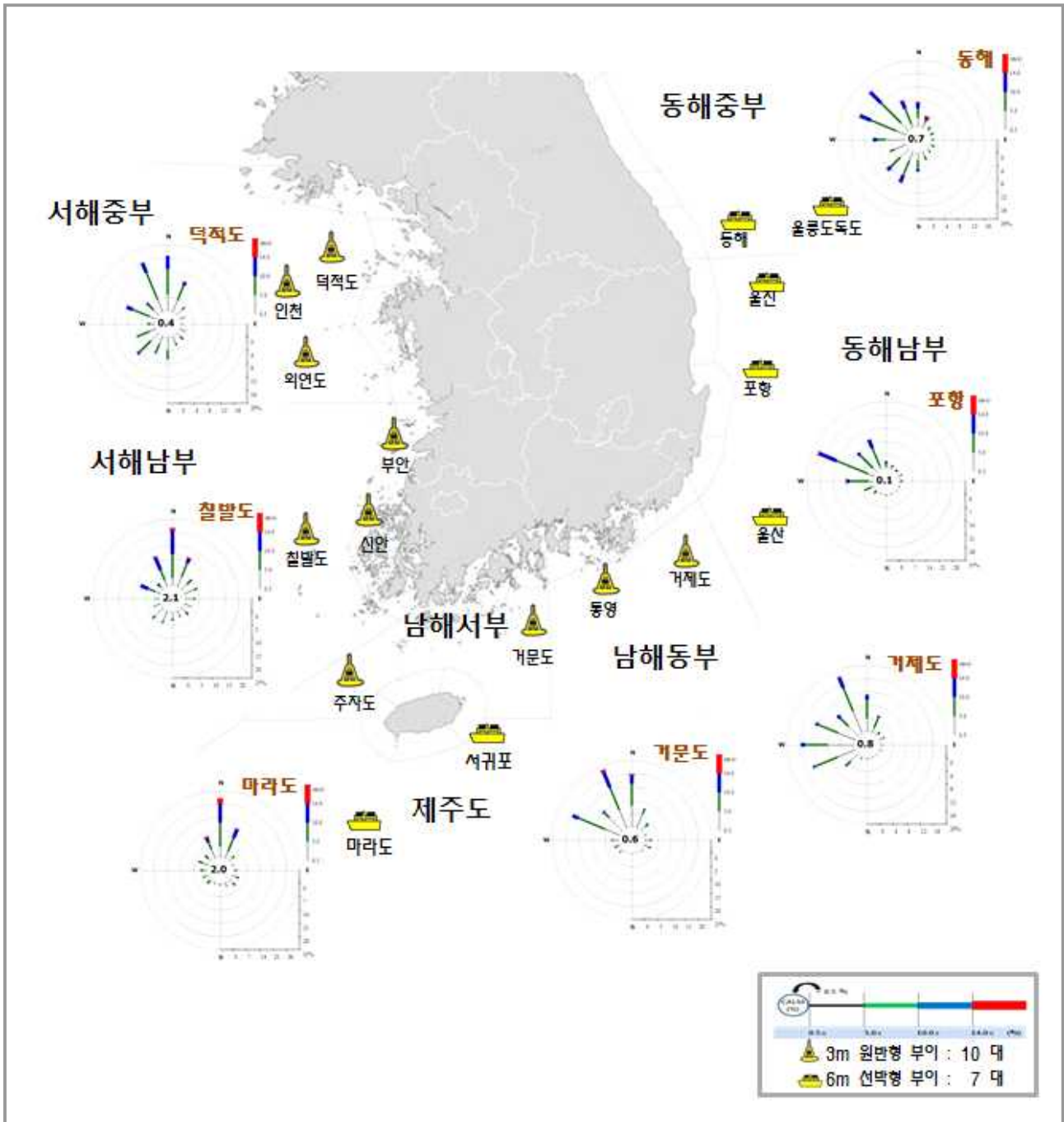


그림 4. 2017년 11월 해양기상부이 해상풍 바람장미

☞ 해양기상부이의 전체 지점별 해상풍 바람장미는 부록1. 을 참고

○ 지난해(2017년) 11월의 해역별 풍속 계급별 분포

해역구분	주풍계	풍속(m/s) 분포(%)					관측지점
		Calm	0.5 ~ 4.9	5.0 ~ 9.9	10.0 ~ 13.9	14.0 ≤	
서해중부	NW ~ NE	0.6	38.2	45.3	15.5	0.4	덕적도, 외연도, 인천
서해남부	N ~ NE	1.7	46.4	32.9	17.7	1.3	칠발도, 부안, 신안
남해서부	NW ~ NE	0.9	45.1	39.7	13.3	1.0	추자도, 거문도
남해동부	NW	1.1	46.5	43.3	9.0	0.1	통영, 거제도
동해중부	NW ~ SW	0.5	29.1	49.1	19.7	1.6	동해, 울릉도
동해남부	NW ~ SW	0.3	26.3	56.7	15.8	0.9	울진, 포항, 울산
제주도	N	1.8	36.4	40.5	17.2	4.1	마라도, 서귀포
전 해상		1.0	38.0	44.1	15.6	1.3	

- 주풍계: 전 해상에서 북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하였음
- 전 해상 풍속: 5.0m/s 미만 39.0% / 5.0 ~ 9.9m/s 44.1% / 10.0m/s 이상 16.9%
- 풍속 분포 최다 해역
 - 5.0m/s 미만: 서해남부해상(48.1%), 북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함
 - 10.0m/s 이상: 동해중부해상(21.3%), 서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함

○ 지난해(2017년) 11월의 해역별 파고 계급별 분포

해역구분	파고(m) 분포(%)					관측지점
	<1.0m	1.0 ~ 1.9m	2.0 ~ 2.9m	3.0 ~ 4.9m	5.0m ≤	
서해중부	48.0	38.9	11.6	1.5	-	덕적도, 외연도, 인천
서해남부	65.3	18.2	12.7	3.8	-	칠발도, 부안, 신안
남해서부	70.0	25.1	4.7	0.2	-	추자도, 거문도
남해동부	72.0	27.4	0.6	-	-	통영, 거제도
동해중부	12.9	51.7	24.9	10.5	-	동해, 울릉도
동해남부	30.5	54.2	11.7	3.3	0.3	울진, 포항, 울산
제주도	46.9	38.8	10.8	3.5	-	마라도, 서귀포
전 해상	48.9	36.6	11.2	3.2	0.1	

- 전 해상 파고: 1.0m 미만 48.9% / 1.0~2.0m 36.6% / 2.0m 이상 14.5%
 - 서해는 1.0m 미만의 파고가 56.7%로 가장 많이 분포함
 - 남해는 1.0m 미만의 파고가 71.0%로 가장 많이 분포함
 - 동해는 1.0 ~ 1.9m의 파고가 53.0%로 가장 많이 분포함
- 파고 분포 최다 해역
 - 1.0m 미만: 남해동부해상(72.0%) / 3.0m 이상: 동해중부해상(10.5%)

■ 해수면온도 10월 실황 및 11월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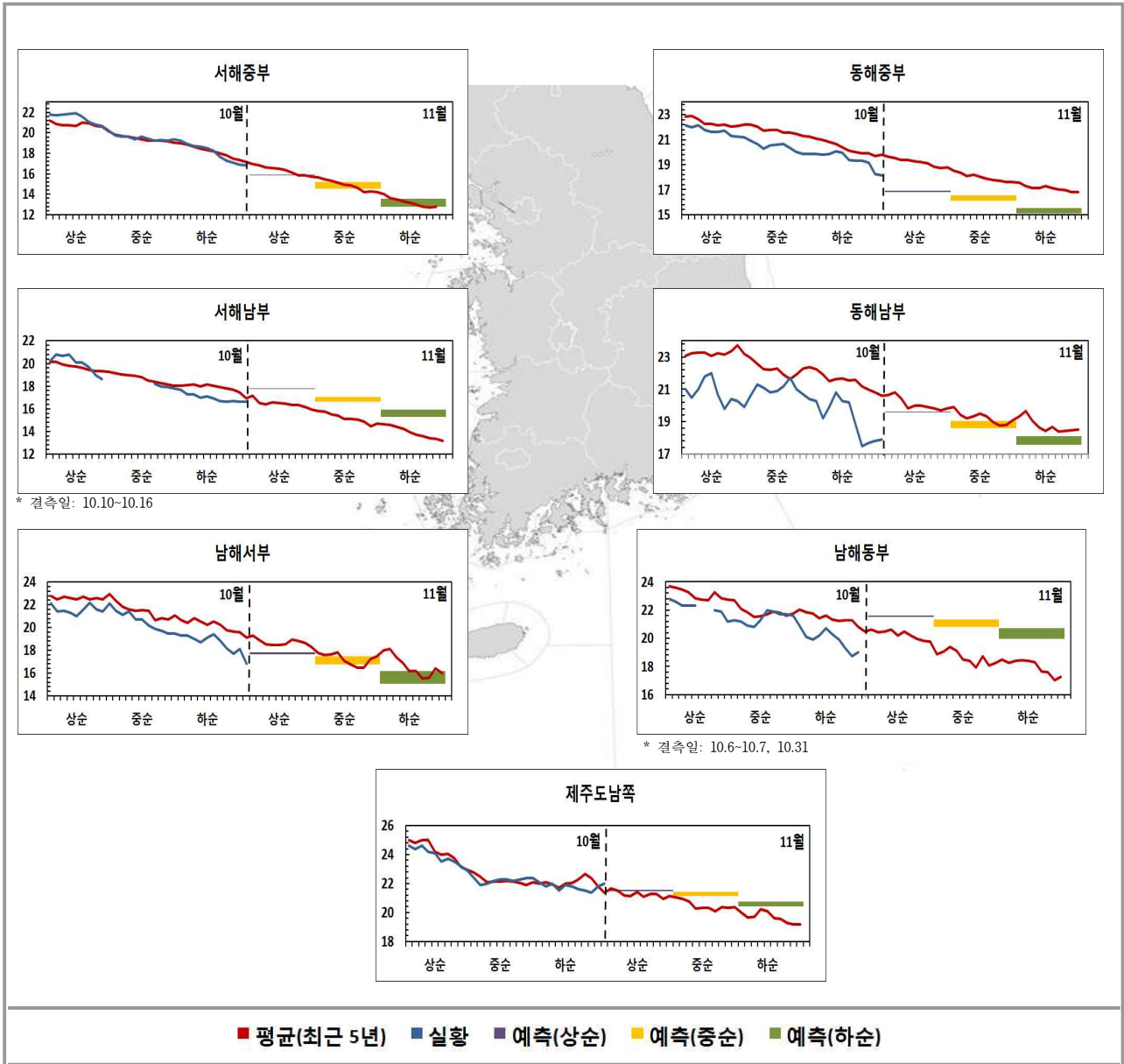


그림 5. 해수면온도 10월 실황 및 11월 예측

- ☞ 수온 관측정보는 해역별 대표 해양기상부이의 지난 달(10월)과 최근 5년간 ('13~'17년) 10월 평균값을 활용
 - 서해중부(덕적도, 외연도), 서해남부(칠발도)
 - 남해서부(거문도), 남해동부(거제도), 제주도남쪽(마라도)
 - 동해중부(동해, 울릉도), 동해남부(포항)
- ☞ 수온 예측정보는 기후예측시스템에서 산출된 해역별 순별 평균 예측값을 활용하여, 실제 관측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18년 10월 해역별 해수면온도 특성

해역	10월 해수면온도(℃) (최근 5년 평균 편차)		
	상순	중순	하순
서해중부	20.3 ~ 21.9 (+0.6)	19.3 ~ 19.8 (+0.1)	16.9 ~ 19.3 (-0.2)
서해남부	18.6 ~ 20.8 (+0.3)	17.8 ~ 18.2 (-0.7)	16.6 ~ 17.7 (-0.9)
동해중부	21.2 ~ 22.2 (-0.7)	19.9 ~ 20.9 (-1.3)	18.2 ~ 20.1 (-0.9)
동해남부	19.8 ~ 22.0 (-2.5)	20.4 ~ 21.7 (-1.3)	17.5 ~ 20.8 (-2.3)
남해서부	21.0 ~ 22.2 (-1.0)	19.5 ~ 21.5 (-0.9)	16.8 ~ 19.4 (-1.6)
남해동부	21.2 ~ 22.8 (-0.9)	20.8 ~ 22.0 (-0.4)	18.7 ~ 20.9 (-1.5)
제주도 남쪽	22.9 ~ 24.6 (-0.3)	21.9 ~ 22.4 (0.0)	21.4 ~ 22.1 (-0.3)

○ 최근 5년간 11월 해수면온도 평균 및 '18년 11월 해역별 해수면온도 예측

(과거) 최근 5년간 11월 해수면온도 평균		(예측) '18년 11월 해수면온도	
관측지점	범위(℃)	해역	범위(℃)
덕적도, 외연도	12.7 ~ 17.2	서해중부	12 ~ 16
칠발도	13.2 ~ 17.2	서해남부	15 ~ 18
울릉도, 동해	16.8 ~ 19.7	동해중부	15 ~ 17
포항	18.4 ~ 20.8	동해남부	17 ~ 20
거문도	15.6 ~ 19.3	남해서부	15 ~ 18
거제도	17.0 ~ 20.6	남해동부	20 ~ 22
마라도	19.2 ~ 21.7	제주도 남쪽	20 ~ 22

※ 해수면온도 예측은 해역을 평균한 기후예측시스템 모델값으로 지점별 관측자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조석 정보

제공: 국립해양조사원

11월 조석예보

서해안의 인천은 11월 8일에 913cm의 고극조위가 나타나며, 남해안의 완도는 11월 25일에 392cm, 동해안의 포항은 11월 27일, 28일에 35cm의 고극조위가 나타나겠음

11월 지역별 고극조위

해역	지역	대조기(삭 11.8)		대조기(망 11.23)	
		발생시각	고극조위(cm)	발생시각	고극조위(cm)
서해안	인천	17:22	913	16:58	890
	안흥	16:23	678	15:57	673
	군산	15:40	709	15:14	689
	목포	14:47	477	14:20	461
남해안	제주	11:08	278	10:41	277
	완도	10:28	373	10:02	374
	마산	09:16	188	08:46	189
	부산	08:45	130	08:19	130
동해안	포항	03:17 18:20	31	17:57	30
	속초	02:43	27	02:09	27
	울릉도	02:10	27	01:35	25

☞ 2018년 조석표(한국연안)는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www.khoa.go.kr), ARS(1588-982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1월 지역별 조위 시계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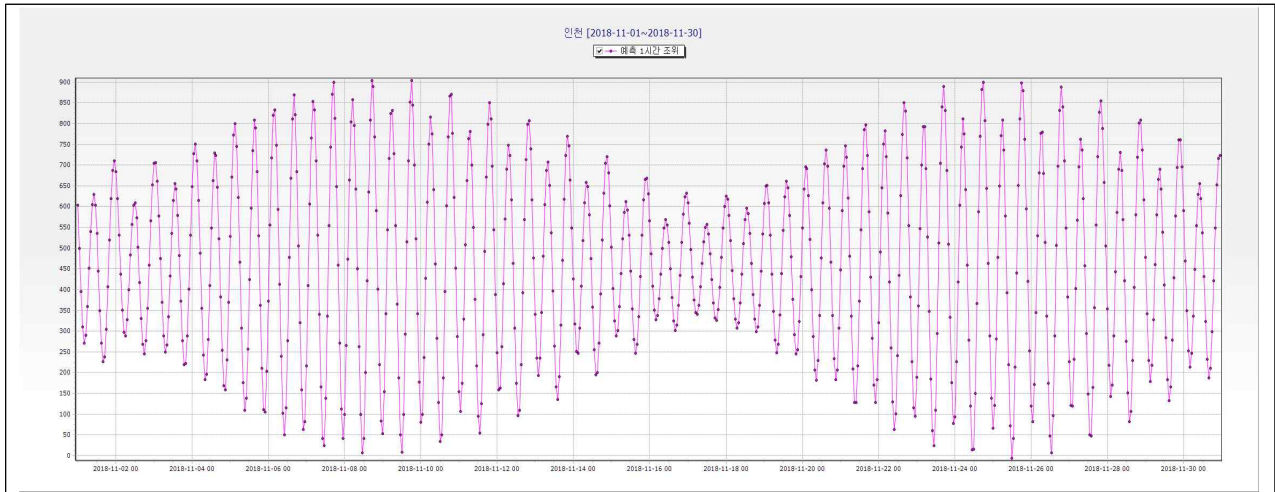


그림 6. 2018년 11월 서해안 인천지역 조석예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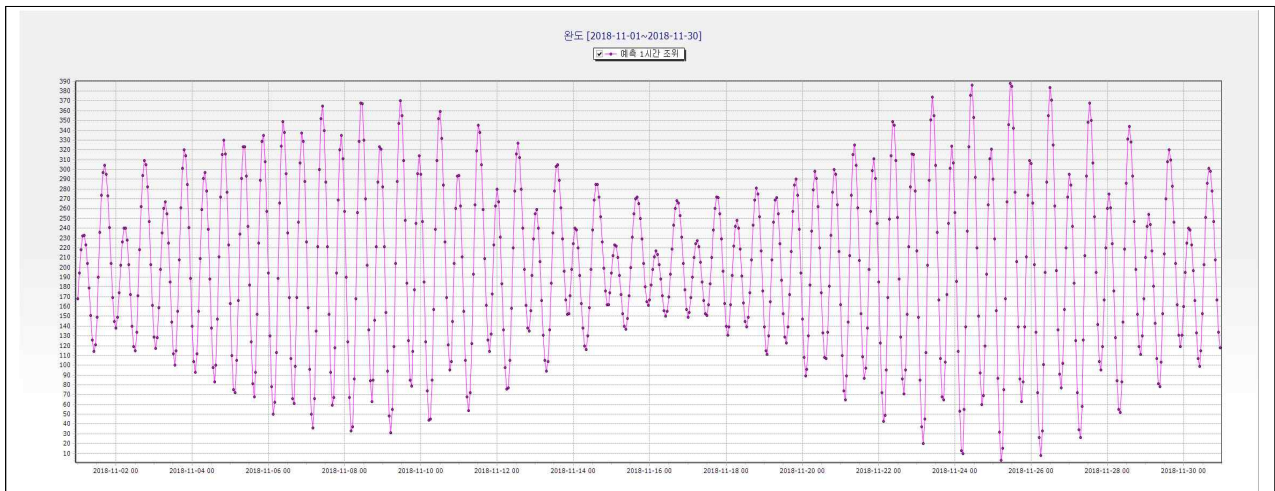


그림 7. 2018년 11월 남해안 완도지역 조석예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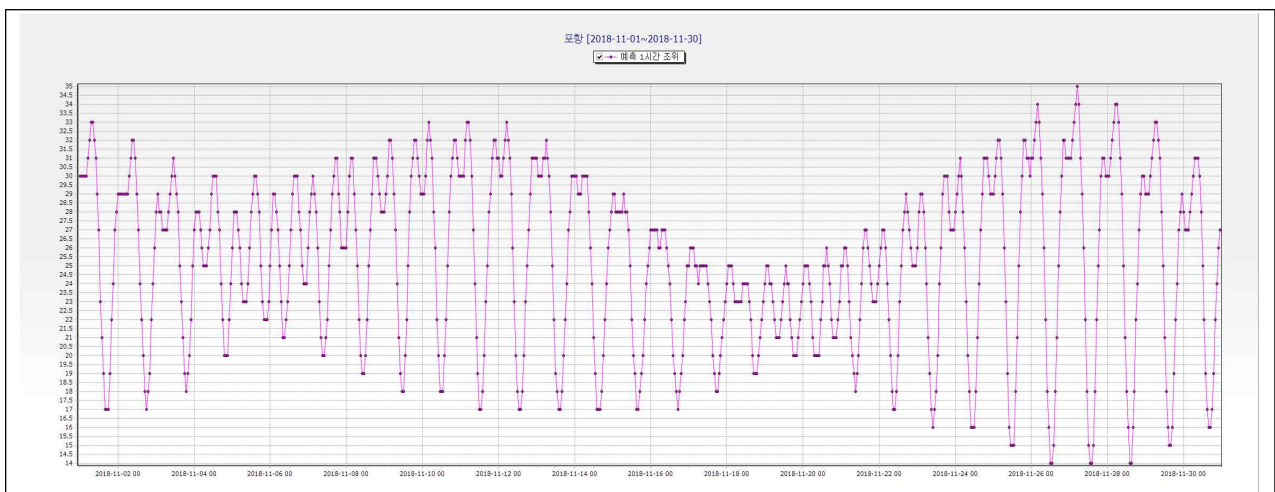


그림 8. 2018년 11월 동해안 포항지역 조석예보

해양안전정보

해난사고 현황

제공: 해양경찰청

■ 최근 5년간('13~'17년) 해상조난사고 현황

최근 5년 동안 선박사고 총 11,209척(75,459명)이 발생하여 선박 10,882척(97.1%) 및 승선원 74,589명(98.8%)이 구조되었고, 선박 328척(2.9%)이 침몰·화재전소로 소실되었으며, 승선원 870명(1.2%)이 사망(652명)·실종(218명)되는 인명피해 발생

구분	발생		구조		구조불능		
	척	명	척	명	척	사망	실종
계	11,209	75,459	10,882	74,589	328	652	218
2017년	3,160	17,336	3,102	17,228	58	83	25
2016년	2,839	20,145	2,775	20,047	64	48	50
2015년	2,740	18,835	2,639	18,723	101	77	35
2014년	1,418	11,180	1,351	10,695	68	396	89
2013년	1,052	7,963	1,015	7,896	37	48	19

○ 최근 5년간 월별 선박사고 현황



그림 9. 월별 선박사고 건 수('13~'17년)

☞ 11월 주요 해상조난사고는 부록2. 를 참고

■ 해상조난사고 현황

- (총괄) 최근 5년간 11월에 발생한 해양 선박사고는 전체 11,209척 중 983척(8.8%)으로 연 평균 197척의 사고가 발생
- 기간 중 사망·실종자는 36명 발생
- (선종별) 어선 594척, 레저선박 155척, 낚시어선 75척 순으로 발생
- (유형별) 정비불량에 따른 기관·추진기·키손상 사고가 372척(37.8%)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충돌, 부유물감김, 침수사고 순으로 발생
- * 충돌 163척(16.6%), 부유물감김 115척(11.7%), 침수 60척(6.1%)

해양 안전정보

- 11월은 동절기에 접어드는 시기로, 기온이 점차 떨어지고 해상기상이 불안정하므로, 운항자 및 해양종사자들은 동절기 대비 선체 정비점검을 철저히 하여 정비불량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 기상특보 및 항행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안전항해를 하도록 권고
- 스마트폰 위치정보(GPS)를 이용, 사용자의 위치가 자동으로 송신되는 「海 Road 어플」 설치 권장
- 기상청 ‘해양기상정보전달시스템’ 가입을 통한 해양기상 정보 수신
 - ※ 해역별 기상특보(농무·풍랑 등) 7가지 정보를 SMS 및 MMS로 제공

해양사고 예방정보

제공: 해양안전심판원

■ 최근 5년간('13~'17년) 11월 해양사고 현황

○ 최근 5년간 11월 해양사고: 총 867건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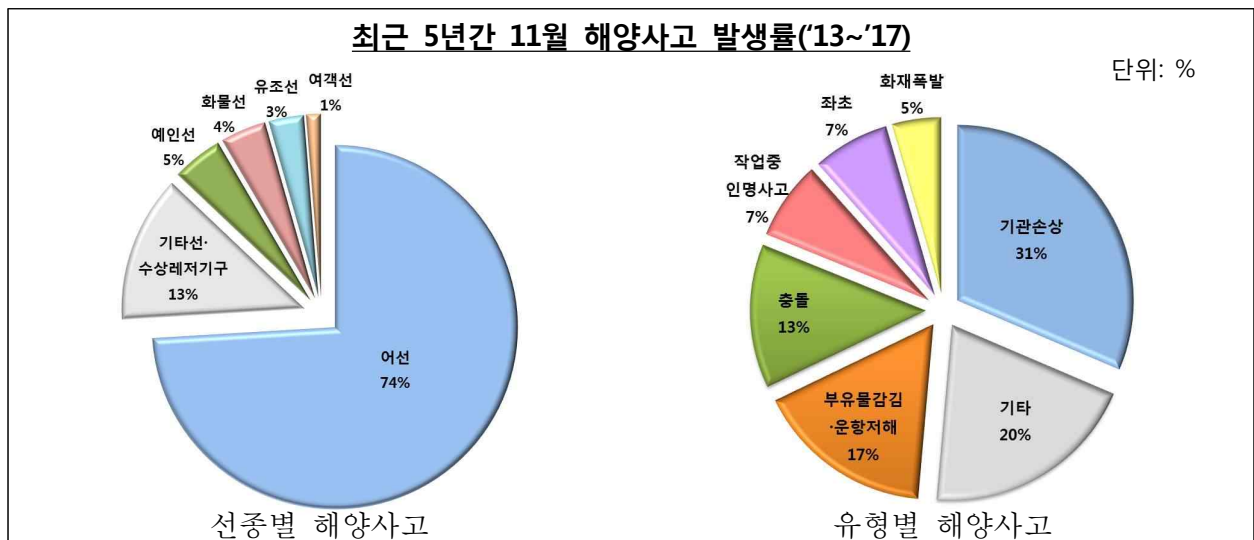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건수	650	524	634	657	835	847	829	907	923	942	867	798

○ 11월은 해양사고 발생률 대비 어선사고 다발시기(11~2월)로, 작업 중 안전장비 착용 및 안전수칙 준수 철저(최근 5년간 월평균 157건, 11월 173건)

- 최근 5년간('13~'17년) 11월 해양사고

- (선종별) 어선 642건, 기타선·수상레저기구 113건, 예인선 39건, 화물선 35건, 유조선 27건, 여객선 11건 등의 순
- (사고유형별) 기관손상 260건, 부유물감김·운항저해 136건, 충돌 110건, 작업중 인명사고*(인명사상) 60건, 좌초 59건, 화재폭발 37건 등의 순

* 2019년 2월 공표예정인 우리원 통계현황에서 '인명사상사고' → '작업중 인명사고' 로 명칭변경



- 최근 5년간('13~'17년) 월별 작업중 인명사고(인명사상사고) 현황 (단위:건)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건수	44	45	49	47	47	39	36	53	54	55	60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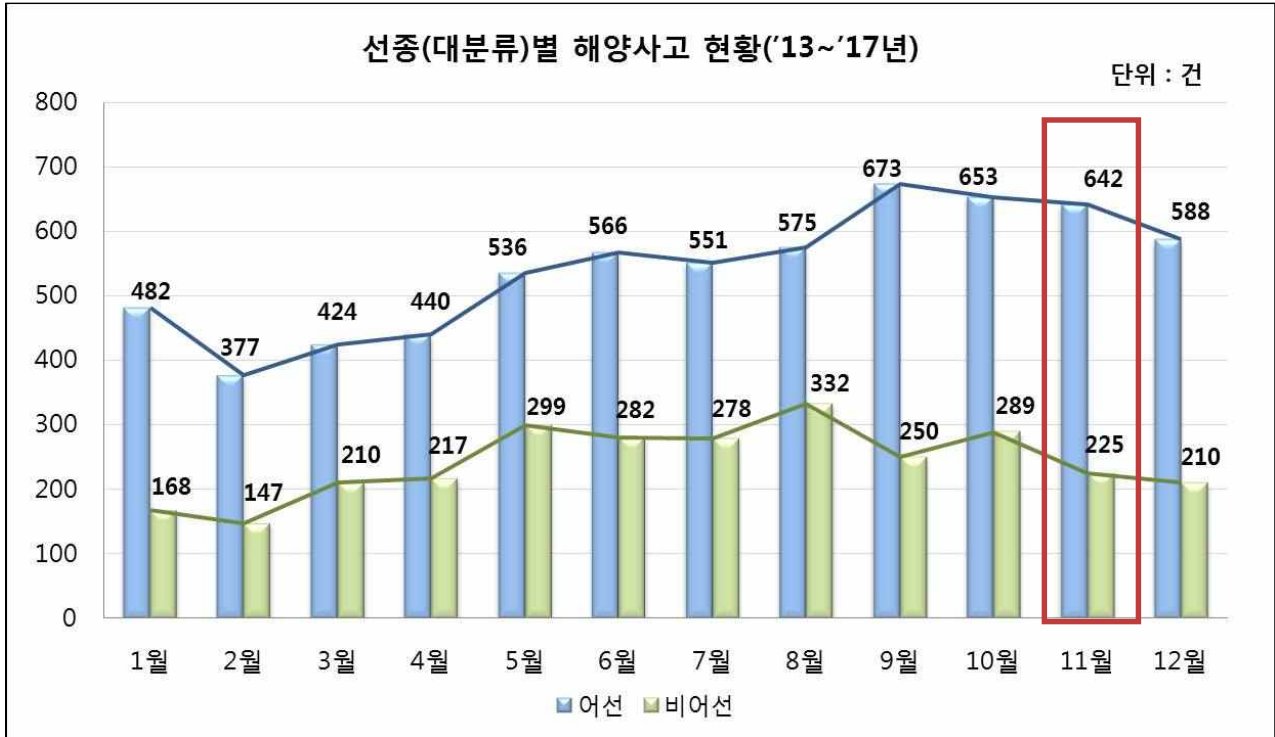
· 11월 작업중 인명사고 현황(선종별): 어선 46건, 예인선 7건, 유조선 4건 등

11월의 해양사고예방 표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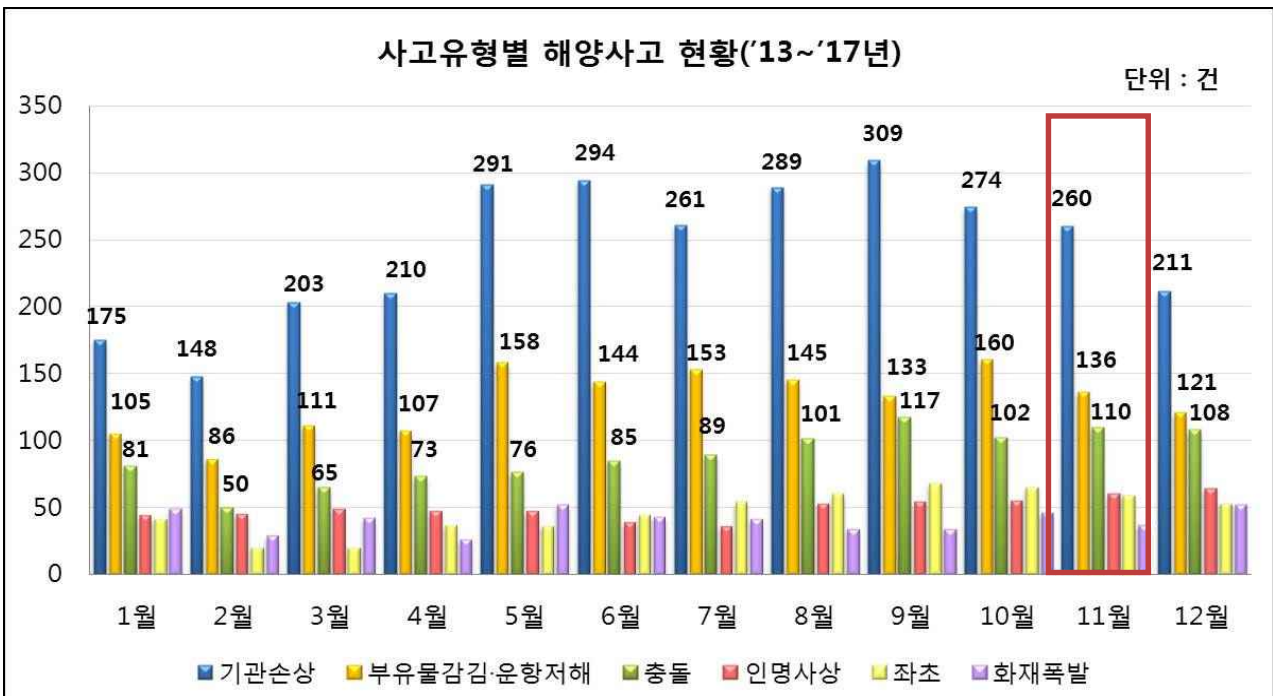
“사망을 1위” 해양사고? 작업 중 안전사고!

최근 5년간('13~'17년) 월별 해양사고 현황

○ 선종[대분류]별 해양사고 현황



○ 사고유형별 해양사고 현황



☞ 11월 주요 해양사고 사례는 부록3. 을 참고

어업정보

제공: 국립수산과학원

■ 11월 어황정보

○ 지난달(10월) 어황

- 전갱이, 고등어는 평년비 순조로웠고,
- 참조기, 갈치, 멸치는 평년수준, 살오징어는 평년비 부진하였음

○ 11월 주요 어망별 어황

- 대형선망어업: 고등어, 망치고등어, 줄삼치, 갈치, 방어, 전갱이 등을 대상으로 제주 주변해역~남해 중부해역을 중심으로 조업하겠음.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비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됨
- 권현망어업: 남해도와 거제도 주변해역에서 조업을 이어가겠고,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수준 또는 평년비 부진한 어황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근해안강망어업: 서해 남부해역~제주 서부해역에 걸쳐 중심어장이 형성되겠고, 참조기, 갈치, 병어 등을 대상으로 조업하겠음. 최근의 단위노력당어획량은 평년비 높은 수준으로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비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됨
-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삼치, 고등어, 갈치, 전갱이, 방어 등을 대상으로 서해 중남부해역~제주 서부 해역에 걸쳐 중심어장이 형성되겠음
- 대형외끌이저인망어업: 제주 남부전역과 제주 동부~남해 근해에 걸쳐 참조기, 가시발새우, 민어류, 눈볼대등을 대상으로 어장이 형성되겠음
- 서남구중형 인망어업: 가시발새우, 참조기, 민어, 가자미류 등을 대상으로 제주남부해역 및 남해동부~동해남부해역에 걸쳐 어장이 형성되겠음
-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강원·경북 근해에서 청어, 도루묵, 기름가자미, 새우류, 가자미류, 대구 등을 대상으로 조업하겠음
- 저인망어업: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비 순조 또는 평년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오징어채낚기어업: 살오징어의 산란·남하회유에 따라 동해 중남부 해역(강원·경북 근해)을 중심으로 어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됨. 최근 단위노력당어획량은 평년비 다소 낮은 수준이나, 평년대비 조업척수는 절반 수준으로,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비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주요 어종별 어황

고 등 어	계절적인 수온 하강과 함께 남하회유가 활발하여, 서해 남부해역에서 북부동중국해로 어군이 이동하면서 제주 주변해역을 중심으로 어장이 형성되겠음. 단위노력당어획량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어군밀도가 높은 상태로 판단되며,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비 순조로운 어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살오징어	산란시기를 맞아 동해 남부 및 북부동중국해로 남하하는 어군을 대상으로 동해 중남부 연·근해(강원, 경북)에서 중심어장이 형성되겠음. 동해에서 주어를 맞아 조업활동이 활발하겠고, 공조조업 등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활동이 강화되겠음. 전체적인 어황은 어군밀도 감소와 내유자원의 감소로 평년대비 부진이 이어질 전망됨
멸 치	외해로 남하하는 어군을 대상으로 남해 중부해역(남해도와 거제도 주변)을 중심으로 권현망어업이 조업을 이어나가겠고, 울산~기장 근해에서 유자망어업에 의한 가을 어기가 시작되겠음.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수준 또는 평년비 부진 할 것으로 전망됨
갈 치	제주 남부 먼 바다-서해 남부해역에 걸쳐 어장이 형성되겠고, 남해 중부 해역에서도 일부어장이 형성되겠음. 남하하는 어군이 지속적으로 어장에 가입하면서 주어기(8~11월)가 이어지겠고,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참 조 기	서해 남부~제주 북서부 근해에 걸쳐 중심어장이 형성되겠고, 주어기(10~11월)가 지속되면서 근해유자망, 근해안강망어업 등 주 업종에서 조업활동이 활발하겠음. 최근 주업종인 근해유자망에서의 단위노력당어획량은 평년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비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됨
전 갱 이	계절적인 남하회유에 따라 제주주변해역을 중심으로 어장이 형성되겠고, 남해 동부 및 서해 남부해역에서도 일부 어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됨.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비 순조 또는 평년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그 외	망치고등어는 평년비 순조로운 어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말귀치는 연·근해에서의 낮은 어군밀도가 지속되면서 부진한 어황을 보일 전망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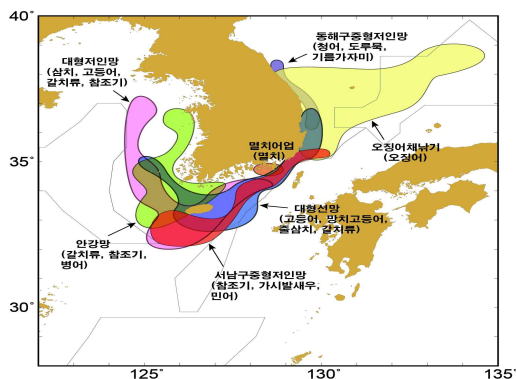


그림 10. 어업별 예상어장도(11월)

【부록 1】

11월의 해양기상부이 해상풍(서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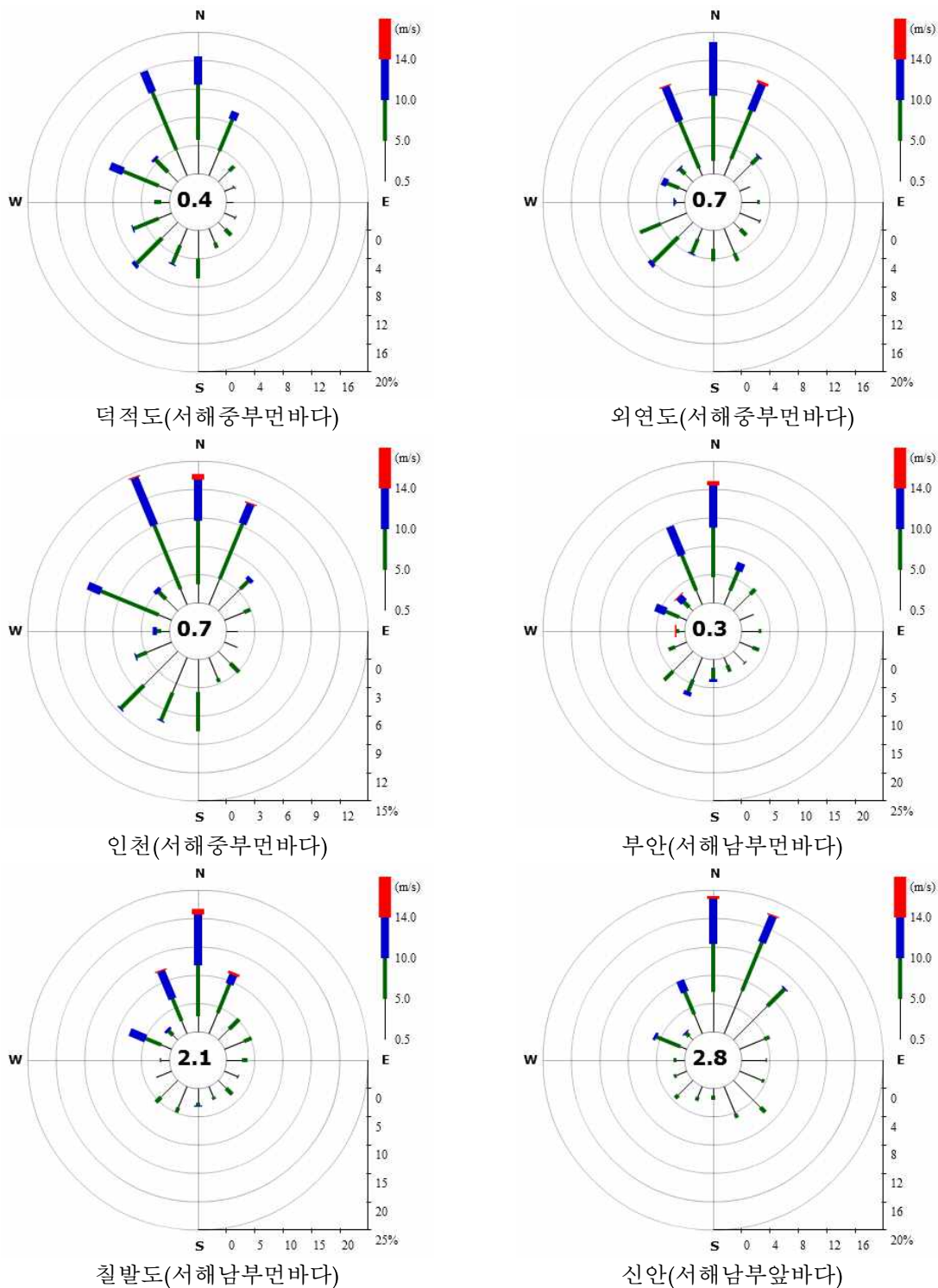


그림 1. 해양기상부이 관측 해상풍(17년 11월, 바람장미)

11월의 해양기상부이 해상풍(남해·제주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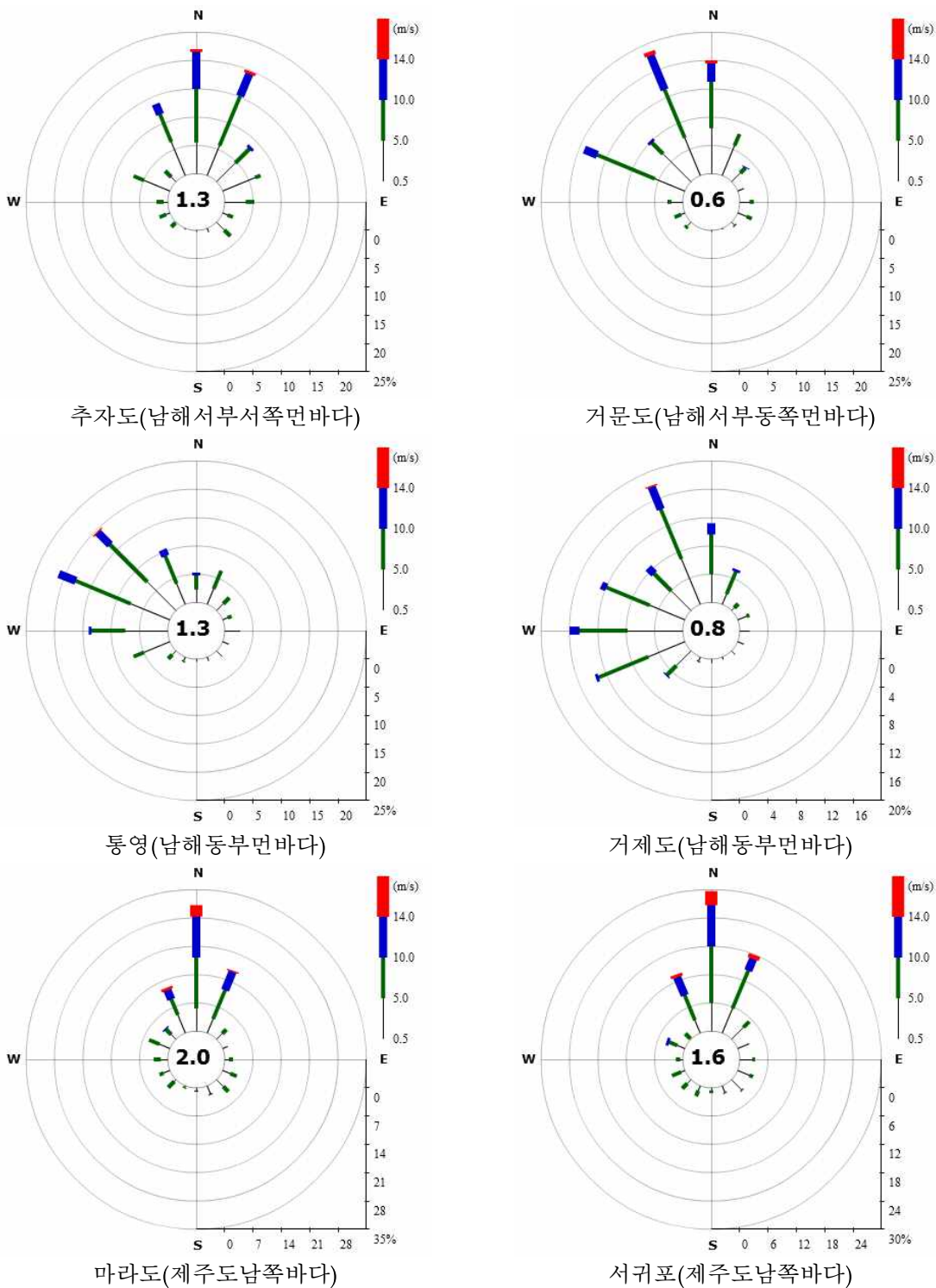


그림 2. 해양기상부이 관측 해상풍('17년 11월, 바람장미)

11월의 해양기상부이 해상풍(동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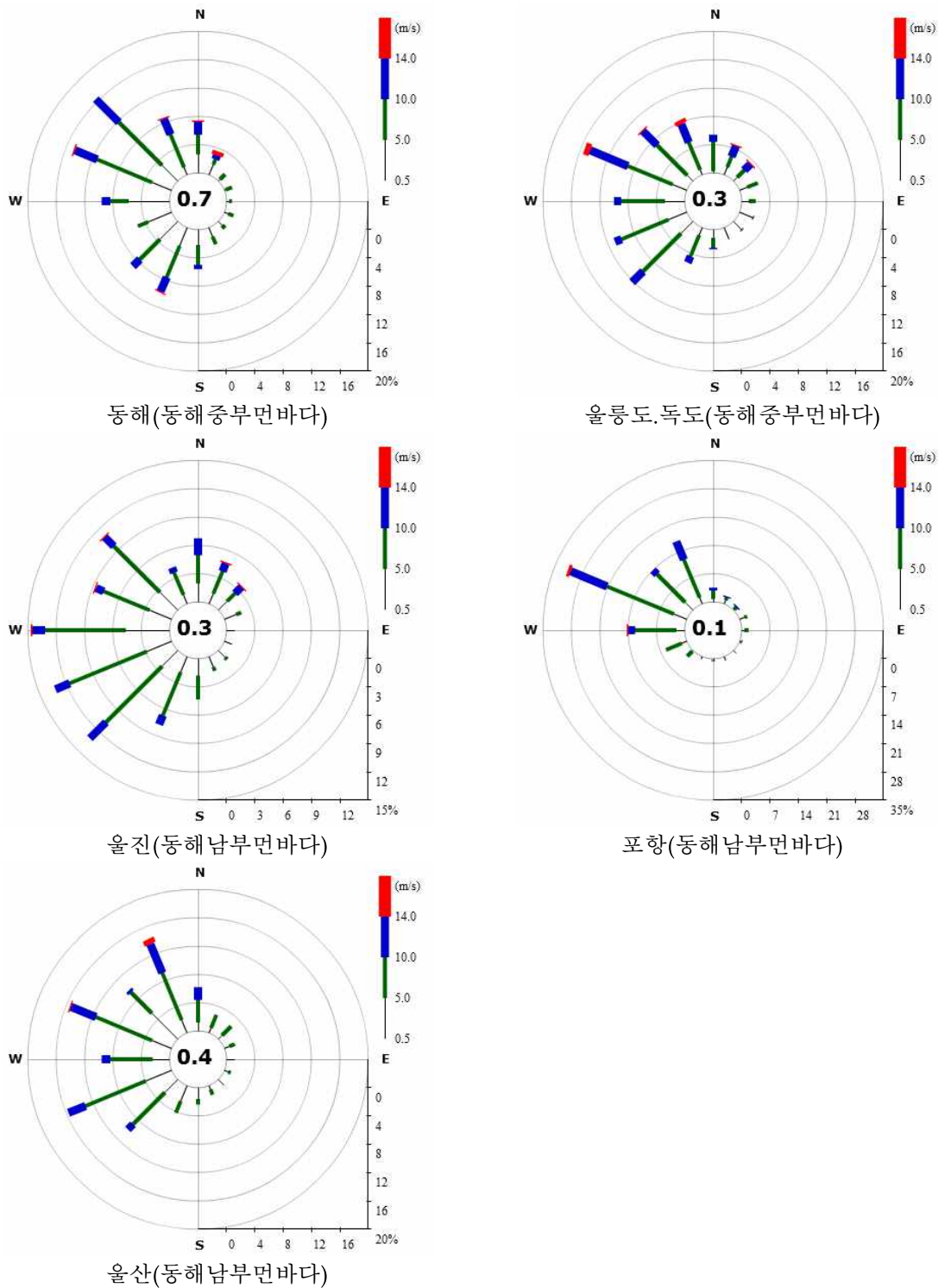


그림 3. 해양기상부이 관측 해상풍('17년 11월, 바람장미)

【부록 2】

11월의 주요 해상조난 사고 사례

제공: 해양경찰청

○ 사고 사례

일 시	선 명	피 해	사고원인
'17.11.9 19:04경	태*호 (96톤, 저인망, 승선원 8명)	선체파손	야간 항해 중 상호 견시 부주의 및 항법 준수 위반 * 당시기상: 북서풍, 6~8㎞, 파고 1.5m, 흐림
	S****호 (2,579톤, 케미컬탱커, 승선원 16명)		
'17.11.21 11:02경	황*호 (1.56톤, 어선, 승선원 2명)	선체전복 2명 사망	원인미상의 선체 침수로 인한 전복 (추정) * 당시기상: 북풍, 6~8㎞, 파고 1m, 맑음



어선 태*호 ↔ 화물선 S****호 충돌



어선 황*호 전복

【부록 3】

11월의 주요 해양 사고 사례

제공: 해양안전심판원

1. 어선 A호 선원사망사건

사건명		어선 A호 선원사망사건
사건 개요	선박	A호: 어선, 45톤, 디젤기관 551kW 1기
	일시	2017. 11. 15. 01:22경
	장소	전남 완도군 청산도항 북방파제등대로부터 진방위 159도 방향 약 3.38마일 해상
	피해	A호: 선원 1명 사망
	상황	조업 중 투망하지 않은 어구 1틀을 어창에 넣기 위해 양망기 작업을 하던 선원이 기관장의 조작실수로 양망기 롤러 사이에 신체 일부가 깔려 들어가 사망
날씨	흐린 날씨, 남풍 초속 4~6m, 파고는 약 0.5m, 시정 양호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장의 양망기 조작실수로 양망작업을 하던 선원의 몸이 양망기에 깔려 들어가 사고발생, 양망작업에 대한 선장의 안전관리·감독 소홀도 일인 	
교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망기와 같이 회전하는 기계 옆에서 작업하는 선원은 옷이나 신체 일부가 양망기 롤러에 끼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작업하여야 함 ○ 양망기 작동레버 조작선원은 작업선원에게 변경사실을 미리 고지하여 여유시간을 부여한 후 조작하여야 함 ○ 양망기 작동레버 조작선원은 작업선원의 안전수칙 준수·안전거리 유지 여부 등 작업 상황을 철저히 확인·감독하여야 함 ○ 선장은 선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평소 선원들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위험설비 사용 선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선장은 선내 인명사고 발생시 신속히 인명구조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다하여야 함 	
사고당시 위치사진		

2. 어선 B호 선원사망사건

사건명		어선 B호 선원사망사건
사건개요	선박	B호: 어선, 9.77톤, 디젤기관367kW 1기
	일시 장소	2016. 11. 2. 01:24경 충청남도 보령시 불안도등대로부터 116도 방향, 5.19마일 해상
	피해	B호: 선원 1명 사망
	상황	조업지에서 안강망 투망작업 중 구멍동의를 미착용한 선원 1명이 선수갑판에 서있다 자루그물에 연결된 줄에 발이 감겨 해상으로 추락, 구조하였으나 사망
	날씨	흐린 날씨, 북서풍 초속 10~12m, 파고는 1.5~2.0m, 시정은 약 2마일로 양호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호의 선수갑판에서 안강망 자루그물 투망작업을 하던 중, 갑판에 서 있던 선원이 부주의하여 자루그물에 연결된 돛줄에 발이 감겨 바다로 추락하여 사고발생, 선원에 대한 선장의 안전관리 소홀도 일인 	
교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에서 투망작업 중에는 그물 또는 줄 등에 발이 감겨 바다로 추락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선장은 선원들에 대하여 그물 또는 줄 등에 올라서거나 발을 놓지 않도록 작업 전에 작업안전수칙을 교육하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어선에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해상 추락 및 부상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작업선원은 반드시 구멍동의 및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여야 함 	
사고당시 재현장면	